

아동의 정서지능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장 미 선*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석사과정)

문 혁 준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전공 교수)

아동이 자신의 감정상태를 인식할 뿐 아니라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감정·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므로 정서지능과 관련된 변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아동 변인(성별, 학년, 자기효능감), 부모 변인(모의 취업,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육태도), 가정환경 변인(가족구성형태, 형제수, 가족응집력), 가정외적(또래) 변인(또래환경)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인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규명해봄으로써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정서 지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 즉 부모 요인, 가정환경 요인, 가정외적 요인(또래 요인)으로 확장하여 이들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알아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220명, 5학년 257명, 6학년 203명으로 총 729명(남학생 344명, 여학생 336명)의 아동이며,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묻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아동의 정서지능 문항, 아동의 자기효능감 문항,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문항, 양육태도 문항, 가족 응집력 문항, 또래환경 문항, 일반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유의도 $p < .05$ 이하 수준에서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 α 를, 아동의 정서지능과 아동 변인, 부모 변인, 가정환경 변인, 가정외적 변인(또래 변인)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 F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아동 변인 중 아동의 성별, 학년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부모 변인 중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셋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가정환경 변인 중 가족응집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넷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가정외적 변인(또래 변인)인 또래환경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부모, 가정환경, 가정외적(또래)의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의 정서지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